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8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0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여수·광양항, 광양만권 이차전지 물류 거점 준공
- 울산항, 10년간 집중 관리로 체선율 최저치 달성
- 평택·당진항, 친환경 자동차운반선 대상 LNG 벙커링 첫 시험운영 성공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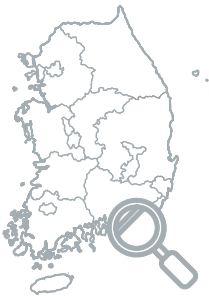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유가 상승 및 해상 물류 불확실성 확대
- 싱가포르항, 중동 리스크로 환적허브 혼잡 우려 확대
- 아프리카 벙커링 허브, 희망봉 우회 선박 급증으로 급성장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해상·항공 운임 동반 급등
- 석유화학, 납사 공급 차질로 감산 및 비상 대응 돌입
-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 이용 범위, 항만이용자 전체로 확대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가 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인 Port-i의 이용 범위를 체인포털 가입자 전체로 확대 적용함
 - '26년 3월 3일부터 Port-i의 확대 적용을 시행하며, 기존 선사·터미널운영사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면 확대함
 - Port-i는 부산항 9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시간 환적 상황을 연계·통합하여 선석·선박·화물 처리 현황을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임
 - 또한, AI·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선박·화물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 9개 터미널 통합 선석 스케줄 제공 기능을 갖추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3.03.),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4863(2026.03.21. 검색)

1 BPA,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²⁾

-  BPA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과 부산항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26년 3월 6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 해외 항만 랜섬웨어 공격 사례 증가와 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대응해 스마트 항만 환경에 부합하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함
 - 부산항이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7%를 처리하는 허브항만으로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국내 수출입과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  양 기관이 협의체 운영과 보안 지원을 통해 부산항 사이버보안 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 부산항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운영하고 터미널운영사 등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지원하기로 함
 - 보안 취약점 진단, 보안 컨설팅, 보안솔루션 도입 및 운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3.06.),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34875\(2026.03.21.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34875(2026.03.21. 검색))

2) 인천항



1 카페리 여객 유치 확대 추진³⁾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가 인천관광공사(ITO,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및 카페리 선사와 협력해 청다오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하며 중화권 대상 마케팅을 추진함

 - 중국 산동성 여행사와 언론사 등 유력 바이어를 대상으로 B2B 상담과 네트워킹을 진행함
 - 국내 지자체 및 관광기관 등 65개 기관이 참여해 한·중 관광 교류 기반을 확대했으며 국제 카페리 홍보를 통해 여객 유치 확대를 도모함
-  카페리 관광의 차별화 요소를 강조하며 수요 기반을 중장년층에서 MZ세대 및 자유여행객(FIT)으로 확대함

 - 대형선박 기반 휴식 공간과 다양한 선내 콘텐츠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매력을 부각함
 -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관광 경험 중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신규 카페리 관광 모델을 홍보하며 시장 다변화를 추진함
-  박람회 참가, 체험 행사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카페리 여객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 4월 해양레저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해 잠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며 5월 K-컬처 체험 행사 운영으로 재이용과 바이럴 효과를 유도할 계획임
 - SNS 홍보, 팸투어 및 쉽투어를 통해 인·아웃바운드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3.2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896&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3.26. 검색)

2 대만 선사 대상 포트세일즈 추진으로 신규항로 확대 기반 강화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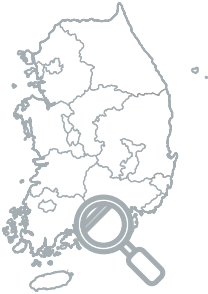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가 대만 주요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추진하며 신규항로 개설과 기항 확대를 통한 물동량 증대를 도모함
 -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본사를 방문해 최고경영진과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선사별 서비스 확대, 신규 항로 개설 및 선대 투입 계획 등에 대해 실질 협의를 진행함
 - 대만을 핵심 교역 파트너로 설정하고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함
-  선사별 협력 전략을 구체화하며 항로 유지 및 물동량 회복 기반을 강화함
 - TS라인스와 인천-동남아 신규 서비스(KCI, Korea-China-Indonesia)를 기반으로 배후단지 연계 물류 협력을 논의함
 - 에버그린과 인천신항 1-2단계 개발 계획을 공유하며 원양항로 유치 협력을 요청함
 - 완하이라인스에는 인센티브 및 운영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기항 유지와 서비스 확대를 요청함
-  항만 인프라 개선과 처리능력 확대를 기반으로 중장기 항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함
 - '28년 준공 예정인 신항 개발을 통해 대형선 수용 능력 확대를 추진함
 - 원양항로 유치 여건 개선과 안정적 물동량 창출 기반을 강화함
 - 후속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3.2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862&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3.26. 검색)

3) 여수·광양항



1 플로우케이, 광양만권 이차전지 물류 거점 '광양물류센터' 준공⁵⁾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플로우케이가 광양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힘
 - 플로우케이는 포스코플로우와 대우로지스틱스의 합작 법인으로, 이차전지·석유화학 소재 등 포스코그룹 포함 고객사 대상 물류 솔루션을 제공함
 - 준공된 물류센터는 총 부지 약 4만㎡, 건축 면적 약 1만 8천㎡ 규모이며, 첨단 재고 관리시스템과 스마트 랙 시스템을 갖춰 연간 약 2만 6천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임
-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구의 물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실시간 화물 추적을 통한 투명한 물류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져 기존 대비 작업 효율이 향상되며, 광양항 물동량 증대 및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특히 포스코그룹이 핵심 미래 산업으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소재 산업과 연계해, 이차전지 특수 보관 및 정밀 물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5) 더 팩트(2026.03.11.), <https://news.tf.co.kr/read/national/2301200.htm>(2026.03.23. 검색)

1 울산항만공사, 선박 항행정보 공유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⁶⁾

●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울산항 내 선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박 항행정보 공유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힘

- 선박의 입·출항, 도선, 예선, 하역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는 복합 물류 공간인 항만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중요함
-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각 기관 및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항만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UPA는 지난 '22년 선박 항행 관련 주요 정보를 통합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3월 18일부터 UPA 대표 고객 시스템인 포트와이즈를 통해 시범운영을 시작함

● UPA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인공지능 항만 구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항행정보 공유로 선박 입·출항 계획 예측 가능성 향상, 선박 대기시간 감소 및 연료 절감, 항행 안전성 강화, 항만 운영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선박, 선사, 연구기관 등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방침임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6) 울산항만공사(2026.03.18.),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161>(2026.03.25. 검색)

2 체선율 1.88% 기록, UPA 창립 이래 최저치 달성⁷⁾

-  지난 10년간 2%가 넘어온 울산항 체선율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관리한 결과 '25년 기준 1.88%의 체선율을 기록하며, UPA 창립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울산항의 경우 입항 선박의 92% 이상이 부정기 운항 형태를 띠고 있어 체선율을 낮추는 데 구조적 제약이 있었음
 - 이에 UPA는 현재 배후부지 공사가 진행 중인 북신항 액체부두 선석을 우선 준공하여 공용부두로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함
 - 체선이 예상되는 선박의 선석을 공용부두로 조정해 체선을 줄였으며, 그 외 대형선박의 접안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선주 및 방충재 교체, 준설 등 항만시설의 개선도 추진함
 - 이와 별도로 유휴 선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석운영지원시스템과 울산항 선석운영 협의회의 SNS를 상시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운영 관리도 함께 강화함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LNG 급유 상업운영 돌입⁸⁾

-  UPA는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하역과 LNG 급유를 동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LNG 급유 상업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힘
 - 지난 2월 23~24일 양일간 자동차부두에서 약 1,375톤의 LNG 급유 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운반선에 LNG가 선박 연료로 처음 상업 공급된 사례임
 - UPA는 본격적인 LNG 상업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위험요소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함
 - 한편, 하역 작업과 동시에 급유가 진행되는 방식은 선박 체류 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높아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자동차운반선과 같은 특수선종에 동시작업이 구현된 것은 울산항의 운영 전문성과 높은 기반 시설 수준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7) 울산항만공사(2026.03.06.),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158>(2026.03.25. 검색)

8) 울산항만공사(2026.02.2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112>(2026.03.25. 검색)

친환경 자동차운반선 대상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첫 시범운영 성공⁹⁾

1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3월 18일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LNG 벙커링 첫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힘

 - 자동차운반선사 유코카캐리어스의 ‘레이크 시라사기(Lake Shirasagi)’호에 한국 LNG벙커링의 ‘블루웨일(Blue Whale)’호가 STS(Ship-to-Ship) 방식으로 1,290MT의 LNG를 급유했으며, 이는 평택항 본격 LNG 상업 공급을 위한 테스트 운영임
 - 향후 추가 벙커링 선박 도입 시 지속 급유가 이뤄질 예정이며, 자동차 항로 8개 서비스 지역 중 5개를 LNG로 급유하게 됨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음

 - '25년 11월 탄소중립 그린수소 항만 조성 업무협약(MOU)을 유관기관 및 대표기업들과 체결함
 - 벨기에 안트워프-브뤼헤항(Port of Antwerp-Bruges)과 친환경 자동차 물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공동 구축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바 있음

평택항 LNG 급유
첫 시범 개시



자료: 경기평택항만공사(2026.03.18.), <https://www.gppc.or.kr/ko/news/media/press/detail/177>(2026.03.23.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9) 경기평택항만공사(2026.03.18.), <https://www.gppc.or.kr/ko/news/media/press/detail/177>(2026.03.23. 검색)

6) 포항항



① 대저페리, 울릉도 항로 운항 재개 및 운임 할인 프로모션 시행¹⁰⁾

- ❖ (주)대저페리가 포항~울릉 도동항 항로에 초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 운항을 재개하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운임 할인 행사를 시행함

 - 썬라이즈호는 선박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로 ’25년 12월부터 휴항했으나,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포항 오전 8시 50분, 울릉 도동항 오후 1시 20분 출항 기준 하루 1번 왕복 운항함
 - 썬라이즈호는 네덜란드 다멘(Damen)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90톤급 쌍동 초쾌속 여객선으로, 최대 승객 442명, 최대 속력 40노트·평균 35노트로 운항하며 포항~울릉 구간을 편도 약 3시간 30분대에 운항함
- ❖ 대저페리는 3월 한 달간 전 국민 대상 여객 운임 50% 할인, 울릉군 주민 대상 여객 운임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함

 - 대저페리는 4월 10일부터 운항 재개 예정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에 대해서도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추가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임

대저페리 쌍동 초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



자료: 경북일보(2026.03.1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528>(2026.03.25.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0) 경북일보(2026.03.1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528>(2026.03.25. 검색)

7) 동해·목호항



① 해군·해경 합동 해상구조훈련 실시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¹¹⁾

- 해군 1함대사령부와 해양경찰 동해해양특수구조대가 목호항에서 합동 해상구조훈련을 실시하며 해양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함**
 -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과 연계해 군·경 간 협력 기반의 구조 대응 체계를 점검함
 - 심해잠수사(SSU) 등 2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구조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함
 - 해상 탐색 및 구조 역량 향상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기반을 강화함
- 침몰 선박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함**
 - 해군·해경 합동 구조팀을 구성해 수중 투입 및 인명 구조 절차를 단계적으로 수행함
 - 표면공급잠수체계(SSDS)를 활용해 선체 내부 구조와 위험요소를 파악함
 - 익수자 모형을 대상으로 탐색·구조 및 인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함
- 다양한 장비 활용과 비상 대응 절차 숙달을 통해 복합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함**
 - 저시야 환경을 가정해 스쿠버(SCUBA) 장비를 활용한 대응 훈련을 실시함
 - 감압 챔버를 활용한 비상 표면감압 절차를 숙달하며 안전성을 확보함
 - 리프팅 백을 이용한 선체 인양 훈련을 통해 구조작전 전 과정의 완결성을 확보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6.02.03.),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29813>(2026.02.23.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시, 항만 기능 재배치 추진¹²⁾

- 목포시가 삼진항 국가어항 개발을 계기로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목포항 기능 재배치를 본격화함
 - 현재 목포항은 어선·여객·물류 기능이 혼재돼 이용 효율이 낮고, 북항은 어선 과밀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북항은 선박 수용 능력을 초과한 어선 정박으로 기상 악화 시 최대 8중 겹치기 접안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내항 또한 어선과 여객 기능 혼재로 관광 기능 활성화에 제약받고 있음
- 삼진항·북항·내항·신항·남항 기능을 재편하고 배후부지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함
 - 삼진항은 총 494억 원을 투입해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물양장·방파제·냉동·냉장 시설 등을 구축해 '30년까지 어선·레저선 등 428척을 수용하는 수산 중심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임
 - 북항은 어선 혼잡 해소 이후 소형어선 및 해경 전용부두로 특화하고, 내항은 어선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친수공간 중심 관광 거점으로 전환할 방침임
 - 신항은 해상풍력 산업과 항만 물류 중심 거점으로, 남항은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클러스터 기반 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내항 주변은 마리나·문화시설 결합 수변 관광공간으로, 신항 배후부지는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중심지로 개발을 추진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연합뉴스(2026.03.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2125600054?input=1195m>(2026.03.21. 검색)

2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¹³⁾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이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부지에서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를 착공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함
 - 실증센터는 '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며, 12MW급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함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에 탑재되는 주요 기자재의 육상 실증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함
 - 착공식에는 전라남도·목포시·전남테크노파크·방재시험연구원·HD현대삼호·HD현대엔진 등 관계기관과 기업 200여 명이 참석함
-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실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투입됨
 - KOMERI가 중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추진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설비를 구축, 방재시험연구원이 안전성 기술지원, 전남테크노파크가 신산업 전환 및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을 담당하게 됨
 - '27년부터 암모니아 혼소엔진,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 누출 감지 안전 기술 등에 대한 육상 실증을 본격화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3) 코리아워킹가제트(2026.03.10.),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6737(2026.03.21. 검색)

9) 대산항



① 서산시, 국제 크루즈선 운항 및 유치 TF 회의 개최¹⁴⁾

- 충남 서산시는 대산항 모항 크루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규 노선 유치 등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함
- '26년 3월 24일 '2026 서산 모항·기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및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여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함
- 국제 크루즈선 운항 관련 기관 관계자 약 50여 명 등이 참석하여 대산항 모항 크루즈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월 13일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 운항 준비 상황도 공유함
- 또한, 서산시는 영국 크루즈 선사인 '노블 칼레도니아'로부터 '28년 5월 대산항 2회 기항 요청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국발 기항 크루즈 유치 진행 상황 등도 점검하는 등 충청권 최초 기항 크루즈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4) 뉴스1(2026.03.25.),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112826\(2026.03.25. 검색\)](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112826(2026.03.25. 검색))

10) 군산항



1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 타당성 논란 확대¹⁵⁾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간 설명이 엇갈리며 사업 타당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짐**

 - 총 5,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대안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 해양수산부는 금란도 투기장 포화와 향후 준설토 발생량을 근거로 신규 투기장 건설 필요성을 설명함
 - 그러나 컨베이어 시스템, 배사관 활용, 기존 부지 이송 등 대체 방안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해양수산부 본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설명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사업 추진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부각됨**

 - 해양수산부는 신규 시설 건설 외 대안 검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함
 - 반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새만금산업단지 활용과 준설토 이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농어촌공사 공문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다고 밝힘
 -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공문이 사업 방향을 결정한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제시됨
- 준설토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관별 판단이 엇갈리며 과거 조사 결과와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됨**

 - 농어촌공사는 군산항 준설토가 매립에 부적합하고 투기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반면 해양수산부는 동일 준설토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설명하며 향후 투기장 부지의 전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함
 - '10년 9개 기관 합동조사, '11년 국토해양부 연구, '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는 군장수역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한 바 있어 판단 변화 배경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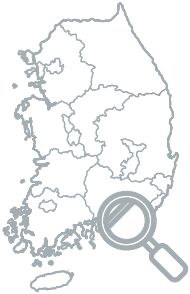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는 관계 부처 이첩 수준에 그쳤고, 감사원도 구체적 감사 내용 공개에 제한적 입장을 보임
 - 정부 부처 간 기본 사실 확인과 대안 비교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간 협의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파이낸셜 리뷰(2026.02.26.), <http://www.haesa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648>(2026.03.26. 검색)

11) 마산항



1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동양부두 야적장 사용권 확보 및 4부두 야적장과 연계 운영¹⁶⁾

-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경남 창원시 마산항 내 동양부두 야적장 사용권을 확보하고, 기존 마산항 4부두 전용 야적장과 연계 운영을 시작함

 - 이번에 추가 확보한 동양부두 야적장 면적은 1만 267㎡로, 기존 사용 중인 마산항 4부두 b-4야적장(7,929㎡)과 근접해 있음
 - 안벽 길이 150m인 동양부두 야적장은 컨테이너 432TEU(3단 적재 기준), 건설기계 장비 및 부품 220대, 수출용 완성차 및 중고차 250대, 일반화물 600t을 장치할 수 있음
-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마산항 내 유일한 국제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하역사업자로서, 이번 야적장 확충을 계기로 선석 스케줄 안정성과 화물 처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마산항 운영 세척상 정기선 우선 접안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정된 야적장과 혼재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정기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월 600~800TEU 수준에 머물던 컨테이너 물동량을 마산 가포신항 하역사업 당시 수준인 월 1,000~1,200TEU 이상으로 회복·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용 야적장 확대를 바탕으로 유럽·동남아 항로 물동량 추가 확보 및 신규 화물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일본 굴지의 유리 기판 제조사 등 글로벌 고객사 물량 유지와 함께, 국내 국적선사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기계·완성차·중고차 환적물량 유치도 병행 추진함
 - 중국 웨이하이 항로 등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환적·복합 물류 수요를 흡수하고, 그룹 계열사 보세창고를 활용한 복합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 확대도 도모할 방침임

16) 한국해운신문(2026.03.19.),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446\(2026.03.25. 검색\)](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446(2026.03.25. 검색))

01 국내 항만 동향

팬스타엔터프라이즈에서
추가로 확보한 마산항
부두 야적장(흰색원)



자료: 한국해운신문(2026.03.19.),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446>(2026.03.25.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상하이항·닝보-저우산항, SM상선을 우수 파트너로 선정¹⁷⁾

- SM상선이 중국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에서 동반 성장 파트너로 선정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음**
 - SM상선은 상하이항 제15차 5개년 발전 계획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선사’에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닝보-저우산항 연례 항만 운송 교류회에서 ‘지속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해운사’로 선정됨
 - 상하이항은 물류 운송 네트워크 고도화 과정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선사로 SM상선을 평가했으며, 닝보저우산항은 물동량 증가율과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상 선사를 선정함
- SM상선이 닝보항 기항 확대와 물동량 증가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음**
 - ’17년 미주 서안 노선(CPX, China Pacific Express) 개설로 닝보항에 첫 기항한 SM상선은 ’18년 미 북서안 연결 PNS 서비스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닝보-저우산항에서 ’24년 20만 TEU를 운송하며 첫 20만TEU 실적을 기록함
 - SM상선은 올해 중국발 미주·아시아 수출 화물 유치 확대와 항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선복 제공을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7) 코리아워핑가제트(2026.02.25.),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6642(2026.03.21. 검색)

2 한·중 항로 1월 물동량 증가에도 운임 약세 전환¹⁸⁾

◆ '26년 1월 한중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하며 반등함

- 1월 물동량은 31만 400TEU로 전년 동월에 기록한 30만 300TEU 대비 증가했으며, 수출은 9만 8,400TEU로 13%, 수입은 20만 1,800TEU로 3% 증가함
- 수출입 비율은 전년 31대 69에서 33대 67로 개선되었으나, 지난해 1월 설 연휴가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은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됨

◆ 석유화학 수출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 부담이 확대됨

- 1월 중국향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39만 톤으로 전년 43만 톤 대비 10% 감소했고, 합성수지(레진)는 32만 톤으로 5% 감소함
- 상하이발 부산행 수입 운임은 2월 2주 평균 TEU당 139달러로 전월 대비 3% 하락함
- 부산발 중국행 수출 운임(KCCI)은 2월 평균 FEU당 52달러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주간 기준으로는 53달러에서 51달러로 하락함
- TEU 환산 수출 운임은 25달러로 저유황할증료(LSS) 50달러보다 낮은 수준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8) 코리아워핑가제트(2026.03.06.),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6688(2026.03.21.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환적허브 혼잡 우려 확대¹⁹⁾

- ◆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 환적항의 혼잡 심화 우려가 제기됨
 - 싱가포르항을 비롯해 탄중펠레파스, 클랑항 등 주요 허브에서 병목 현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
 - 중동행 화물이 직접 운송되지 못하고 아시아 허브에 일시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일부 선사는 싱가포르항을 대체 적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 선박 운항 차질과 항로 재편으로 단기적인 공급 부족과 운영 비효율이 확대됨
 - 페르시아만에 약 45만 8천TEU 규모(132척)의 선박이 묶이며 선박 부족이 발생함
 - 이는 글로벌 선대의 약 1.4% 수준으로 물류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함
 - 항로 변경 및 기항 생략이 증가하며 정시성이 저하되고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됨
- ◆ 물류비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이 확대되며 항만 운영 부담이 가중됨
 - 전쟁위험 보험료 상승과 유류비 증가로 해상운임 상승 압력이 확대됨
 - 환적 지연, 장비 부족, 스케줄 교란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함
 - 중동 항로뿐 아니라 주요 장거리 항로 전반으로 운임 상승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9) The Business Times(2026.03.03.), <https://www.businesstimes.com.sg/international/global/singapore-tg-pelepas-port-klang-could-face-congestion-middle-east-bound-boxships-capacity-shortage>(2026.03.26. 검색)

2 일본 요코하마항, 항만 탈탄소 정책 확대 및 인증체계 고도화 추진²⁰⁾

- 
일본 국토교통성은 탄소중립항만(CNP, Carbon Neutral Port) 인증체계를 도입해 항만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항만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단위 인증체계를 구축함
 - 터미널 운영 효율 개선과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유도함
 - 아시아 지역 항만 탈탄소 정책 확산의 기준 모델로 제시됨
- 
요코하마항은 100개 이상의 탈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항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함
 - 항만 선박 및 하역장비 전동화와 친환경 연료 개발을 병행 추진함
 - 해상풍력 전력을 활용한 전력 운송 등 에너지 활용 혁신 모델을 도입함
 - 국제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됨
- 
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
 - 고등급 인증을 위해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의무화와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시됨
 - 메탄 등 추가 배출원 포함과 정책 업데이트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됨
 - 수소 공급망 구축 및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기반 강화가 요구됨
-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남
 - 항만은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된 탄소 감축 거점으로 기능함
 -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
 -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육상전원공급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며 정책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0) Index Box(2026.03.20.), <https://www.indexbox.io/blog/japans-port-decarbonization-a-model-for-asias-maritime-future/>(2026.03.26. 검색)

3 하팍로이드(Hapag-Lloyd), 인도 정부와 해운 협력 강화²¹⁾

-  하팍로이드와 인도 정부가 해운·물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에 나섬

 - 양측은 선박 국적 변경, 친환경 선박 재활용, 바다반(Vadhavan) 항만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최대 4척의 선박을 인도 선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실행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친환경 선박 재활용에 대해서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선박 재활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최대 100척 규모의 처리 역량 확보가 추진됨
 - 바다만 항만의 경우 인도의 핵심 신규 항만 프로젝트로 하팍로이드는 글로벌 해운 및 터미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 개발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임
-  한편, 하팍로이드는 인도를 글로벌 핵심 성장 시장으로 평가하며 인도 시장 내 투자 및 물동량 확대를 통해 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 내 2,800명 이상의 인력과 17개의 사무소를 기반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인도 지역 물동량을 약 300만 TEU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1) Hapag-Lloyd(2026.03.19.), <https://www.hapag-lloyd.com/en/company/press/releases/2026/03/hapag-lloyd-and-government-of-india-sign-letter-of-intent-on-mar.html>(2026.03.25. 검색)

4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및 해상 물류 불확실성 확대²²⁾

-  이란의 중동 에너지 인프라 공격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안전성 약화 발언으로 국제 유가 상승 및 해상 물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3월 17일 기준, 브렌트유 약 103달러(+3%), WTI 약 97달러(+3.7%)로 상승했으며, 미국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3.79달러로 '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LNG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통항 차질 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 페르시아만 및 해협 인근에서 선박 공격이 12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유조선 피격·푸자이라 항만 화재·UAE 가스전 가동 중단 등 에너지·항만 인프라 피해가 확산됨
-  이란의 해협 안전성 부정 발언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향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국제 대응에 제한적 전개가 이어지고 있음

 - 이란은 해협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고 언급하여 항행 안전 불확실성을 공식화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약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개시하고 추가 방출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단기적 완충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해협 재개방을 위한 동맹 협력을 촉구했으나, 유럽연합은 군사 개입 확대를 거부하고 제한적 대응 기조를 유지함
 - 영국은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보임
 - 이로 인해 해상 운임 상승,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선박 보험료 상승, 항로 우회 증가 등 해운·항만 산업 전반에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2) CNN(2026.03.17.), <https://edition.cnn.com/2026/03/17/business/oil-prices-strait-iran-attacks-intl>(2026.03.25. 검색)

3) 미주



1 '26년 2월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감소²³⁾

- 📍 '26년 2월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이 감소했으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입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함
 - 미국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209만 TEU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나, 2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신규 관세 시행 이전에 물량을 미리 들어오려는 조기 선적의 영향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중국발 수입은 감소했으나, 전체 비중은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태국·한국 등 주요 국가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사법 판단 등 정책 변수들이 무역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 한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해운 연계 리스크가 확대되며 글로벌 물류 차질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둔화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선사들의 유류 할증료 도입 등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선사들이 걸프 지역 기항을 중단하면서 항만 적체 및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임
 - 또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홍해 지역의 안보 리스크 재부각으로 해상 운송 불확실성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3) Reuters(2026.03.10.),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container-imports-fell-65-february-still-fourth-highest-record-descartes-says-2026-03-10/\(2026.03.25. 검색\)](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container-imports-fell-65-february-still-fourth-highest-record-descartes-says-2026-03-10/(2026.03.25. 검색))

2 APM Terminals, 멕시코 라사로 카르데나스항 2단계 확장 완료²⁴⁾

-  APM 터미널이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항의 2단계 확장을 완료하고 3단계 투자에 착수하며, 항만 물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약 1억 4천만 달러가 투자된 2단계 확장을 통해 운영 면적 65헥타르, 연간 200만 TEU 처리 능력을 확보하며, 중남미 주요 물류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함
 - 3단계 확장은 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약 3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통해 450m의 추가 선석을 건설하여 총 1,200m 길이의 부두를 확보할 예정임
-  새롭게 확장된 구역에는 자동화·전기화 기반 첨단 기술 도입으로 항만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

 - 라사로 카르데나스 터미널은 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완전 자동화된 컨테이너 야드를 갖춘 터미널로 2단계에서는 전기식 자동화 크레인, 셔틀 캐리어, 통합 운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 정밀도와 안전성 등을 향상시킴
 - 향후 완전 전기식 장비 도입 확대와 자동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운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29년까지 약 1,7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건설·물류 서비스 분야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됨
 - 특히 3단계 건설 과정에서 약 4,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발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4) APM Terminals(2026.03.20.), <https://www.apmterminals.com/en/news/news-releases/2026/260320-APMTerminals-lazaro-cardenas-announces-investment-PhaseII>(2026.03.25. 검색)

4) 유럽



1

유럽집행위원회·EIB, 중소형 항만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 도입²⁵⁾

-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 역내 중소형 항만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프로그램 ‘JASPERS(Joint Assistance to Support Projects in European Regions)’를 출범시킴

 - 해당 프로그램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 타당성 조사·환경 법규 준수·재무 구조화 등 프로젝트 초기 개발 단계에 대한 기술적·재무적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자문 지원을 통해 항만들이 유럽연결시설(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 결속기금(Cohesion Funds), EIB 금융 등 EU 교통 인프라 재원에 접근하기 위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 내 다수 중소형 항만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술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중량물 처리 안벽, 대형 화물 야적장, 하역 인프라 등 특화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이는 해상 풍력 개발, 산업 장비 운송,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등과 연계된 프로젝트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역내 항만의 특화 화물 처리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프로그램은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항만 전략’과도 연계되며, 동 전략은 무역·에너지·산업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유럽 항만의 역량 강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항만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형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지역 연결성과 공급망 회복력 유지에 있어 이들 항만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 이번 자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수의 중소형 항만이 인프라 투자 구상을 실현 가능한 자원 확보 프로젝트로 전환함으로 프로젝트 화물 및 에너지 전환 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5) WorldCargo News(2026.03.16.), <https://www.worldcargonews.com/ports-terminals/2026/03/new-eu-framework-for-small-ports-to-boost-heavy-lift-capacity/> (2026.03.25. 검색)

2 스페인, 알헤시라스항 외곽 신규 철도 터미널 건설 검토²⁶⁾

-  스페인 교통부가 역내 최대 항만인 알헤시라스항의 철도 처리 역량 확충을 위해 항만 외곽 지역에 신규 철도 터미널 건설을 검토 중임

 - 현재 알헤시라스항의 철도 서비스는 일부 터미널의 열차 길이 제한(350m)과 철도 운용에 필요한 측선 부족으로 인해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항만 내부에서의 철도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교통부는 항만 구역 외부에 터미널 또는 기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신규 터미널 예정 부지는 알헤시라스항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보타푸에고스(Botafuegos) 지역으로, 보바디아(Bobadilla) 방면 철도 노선을 따라 위치함

 - 스페인 정부는 총사업비를 6,200만 유로로 추산한 예비 타당성 조사(Informative Study)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조사에서 채택된 방안은 5개 측선 신설과 항만과의 직접 연결을 위한 3.65km 신규 노선 건설을 포함함
 - 현재 프로젝트는 초기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철도 연결성 강화는 알헤시라스~사라고사(Zaragoza) 간 철도 하이웨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평가됨

 - 알헤시라스~사라고사 철도 하이웨이는 당초 '24년 운행 개시가 예정되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바 있으며, 이후 '26년 말로 재조정된 상태임
 - 반트레일러²⁷⁾ 운반 열차를 견인하기 위한 기관차 7대는 이미 모두 인도 완료된 상태이나, 알헤시라스 구간의 인프라 한계로 인해 해당 노선의 서비스 연장은 여전히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6) WorldCargo News(2026.03.19.), <https://www.worldcargonews.com/ports-terminals/2026/03/spain-eyes-new-rail-terminal-near-algeciras/>(2026.03.25. 검색)

27) 반트레일러(semi-trailer): 자체 동력 없이 트럭(트랙터)에 연결되어 일부 하중을 트랙터와 함께 지지하며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5) 오세아니아



1 멜버른항, 호주 최초 완전 전기 예인선 도입 타당성 검토 착수²⁸⁾

- 
멜버른항(Port of Melbourne)이 글로벌 예인선 운영사 스비처(Svitzer),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CIP,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플렉사 에너지(Plexar Energy)와 전기 예인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완전 전기식 ‘TRAnsverse 2600e’ 예인선 2척의 멜버른항 도입 타당성과 전용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및 고용량 충전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평가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임
 - 덴마크 국왕 부부의 호주 국빈 방문 에너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멜버른항 교육센터에서 서명식이 진행되었으며, 멜버른항과 덴마크 기업(스비처, CIP, 플렉사 에너지) 간 친환경 항만 협력을 상징하는 자리로 마련됨
- 
스비처 등 협약 참여기관은 전기 예인선이 항만 탈탄소화와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전기 예인선은 선박 조종 성능 향상, 소음·진동 감소, 운영비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전용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예인선 운영에 최적화된 안정적 전력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스비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예인선 업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으며, 플렉사 에너지는 마이크로그리드와 AI 기반 최적화 도구를 통해 전기화 비용 절감과 전력 가용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 멜버른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주 내 지속가능한 예인선 운영의 선도적 사례를 구축하고, 항만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화 및 효율성 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8) Port of Melbourne(2026.03.18.), [https://www.portofmelbourne.com/port-of-melbourne-svitzer-cip-and-plexar-energy-to-explore-australias-first-fully-electric-towage-operations/\(2026.03.24. 검색\)](https://www.portofmelbourne.com/port-of-melbourne-svitzer-cip-and-plexar-energy-to-explore-australias-first-fully-electric-towage-operations/(2026.03.24. 검색))

6) 아프리카

1 아프리카 연안 벙커링 허브, 희망봉 우회 선박 증가로 급성장²⁹⁾

-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해운 항로 재편으로 아프리카 연안 벙커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23년 말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이후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바브엘만데브 해협 통과가 감소해 왔으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희망봉 우회가 본격화됨
 - 머스크(Maersk), 하파로이드(Hapag-Lloyd),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3월 중 희망봉 우회 항로 전환을 발표했으며, 케이프상공회의소(Cap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우회 선박 수가 전년 대비 112% 증가함
 - 우회 항로는 운항 시간이 늘어나지만, 아프리카 연안 급유 거점에서의 재급유 수요를 창출하며 연료 공급업체와 트레이딩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기존 벙커링 업체의 물량 확대와 신규 진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나 인프라·규제 과제도 상존함
 - 덴마크 모냐사(Monjasa) 등 기존 공급업체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톨(Vitol), 플렉스 코모디티즈(Flex Commodities) 등 신규 업체들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플렉스 코모디티즈는 '25년 11월 나미비아 월비스베이(Walvis Bay)·뤼데리츠(Luderitz)에서 벙커링을 개시했으며, 가나 벙커링 업체 미사 에너지(Misa Energy)는 향후 10년 내 가나 벙커링 물량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Port Louis)의 '24년 벙커링 연료 판매량은 약 92만 9천 톤으로 전년(약 50만 9천 톤)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반면, 남아공은 세무 단속 영향으로 월간 벙커링 물량이 '23년 약 13만 톤에서 '24년 약 8만 톤으로 감소함
 - 다만 해적 위협, 항만 인프라 부족,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중동산 연료 수출 감소로 벙커링 연료 공급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 등이 아프리카 벙커링 시장의 구조적 과제로 지적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9) Reuters(2026.03.23.),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african-bunkering-hubs-gain-ships-reroute-around-cape-2026-03-23/\(2026.03.24.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africa/african-bunkering-hubs-gain-ships-reroute-around-cape-2026-03-23/(2026.03.24.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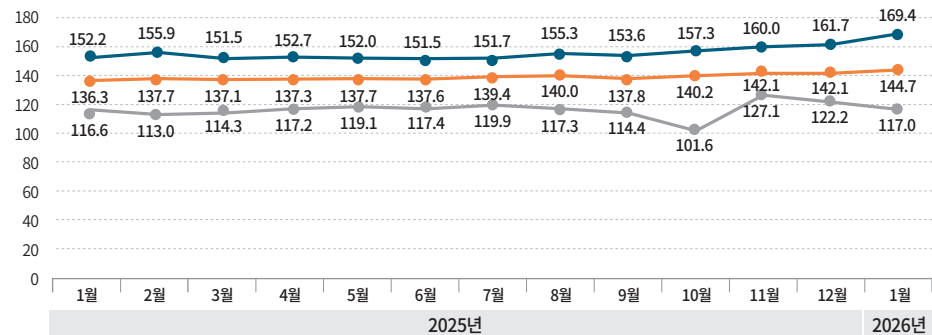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① '26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³⁰⁾

- '26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144.7p를 기록함
 - '25년 상반기 보합세를 보이던 지수는 하반기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6년 1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44.7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6월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169.4p를 기록함
 - 유럽 항만은 10월 큰 낙폭 후에 반등하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4.3% 감소한 117.0p를 기록함



구분	2025년												26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6.3	137.7	137.1	137.3	137.7	137.6	139.4	140.0	137.8	140.2	142.1	142.1	144.7	1.8	6.1
China Index	152.2	155.9	151.5	152.7	152.0	151.5	151.7	155.3	153.6	157.3	160.0	161.7	169.4	4.8	11.4
North Range Index	116.6	113.0	114.3	117.2	119.1	117.4	119.9	117.3	114.4	101.6	127.1	122.2	117.0	-4.3	0.3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6.02.27.),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225\(2026.03.21. 검색\)](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225(2026.03.21.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0) ISL(2026.02.27.),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225\(2026.03.21. 검색\)](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225(2026.03.21. 검색))

2 미국 무역대표부, 구조적 과잉생산 근거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³¹⁾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주요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을 근거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상호관세 복원을 추진함
 - USTR은 과잉 생산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철강 등 다수 산업을 조사 대상으로 열거함
 - 현재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한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 중이며, 7월 중순부터 301조를 통해 기존 상호관세율을 재적용하려는 구상임
 -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15% 상호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으며, 232조가 적용된 품목(자동차 25%, 철강 50% 등)과는 별도 조치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사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함
-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는 가운데 정부는 투자 확대 효과를 근거로 대응 방침을 밝힘
 - 미국은 한국의 '24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 약 560억 달러를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교란의 결과로 지목함
 - 미국은 보조금·생산능력 확대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졌다고 주장함
 - 정부는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부품 수출 증가가 흑자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함
 - 정부는 한미 합의 이행과 신뢰 유지를 전제로 조사 및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 기여 효과를 적극 설득할 방침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1) 전자신문(2026.03.12.), <https://www.etnews.com/20260312000297>(2026.03.21. 검색)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해상·항공 운임 동반 급등³²⁾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선·LNG선·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고 항공화물 운임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물류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음

- 발틱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중동~중국 노선 VLCC 운임지수(WS)는 348.9로 전쟁 직전 대비 55% 급등했으며, 연초 대비 약 7배 상승함
- LNG 운반선 스폿 운임은 20만 5천달러로 전쟁 직전 대비 5.8배 상승했고, 1년 정기 용선료도 2.4배 급등함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710.35로 약 8개월 만에 1,700선을 회복했으며, 중동 노선 운임은 TEU당 3,220달러로 40% 급등해 미주 동안 노선을 추월함
- 해상 운송 차질 여파로 항공화물 운임도 상승세를 보이며 싱가포르발 운임은 전주 대비 47.6% 급등하는 등 주요 노선 전반에서 인상 흐름이 확대되고 있음

운임 급등은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과 물류 차질로 직결되고 있으며, 해운·항공업계 역시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에 직면함

- 중소기업은 스폿 계약 비중이 높아 운임 상승에 더욱 취약하며, 중소기업벤처부 집계 결과 운송 차질 및 물류비 상승 관련 애로가 76건 접수됨
- 일부 기업은 선박 확보 어려움과 물류비 급등으로 수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함
- 해운·항공업계는 단기적으로 운임 상승 효과가 있으나, 선박유·항공유 가격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됨
-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 증가와 물동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산업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2) 부산일보(2026.03.15.),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1509463607066>(2026.03.21. 검색)

2) 양곡



1 '26년 2월 CBOT 곡물 가격, 대두 중심 상승세·곡물별 차별화 흐름

❖ '26년 2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Chicago Board of Trade) 기준 주요 곡물 가격은 대두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으며, 밀은 반등, 옥수수는 보합 수준을 보이며 품목별 차별화 흐름을 나타냄

- 전월 조정 국면 이후 대두와 밀은 상승 전환하며 가격 회복세를 보임
- 옥수수는 소폭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유지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대두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밀과 옥수수는 하락세 지속됨

❖ 밀 가격은 202달러/톤으로 전월(191달러/톤) 대비 5.9%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9% 하락한 수준임

- 단기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재고 증가 전망이 중장기 가격 상승을 제약함
- 글로벌 공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승 폭은 제한되는 모습임

❖ 대두 가격은 412달러/톤으로 전월(387달러/톤) 대비 6.6%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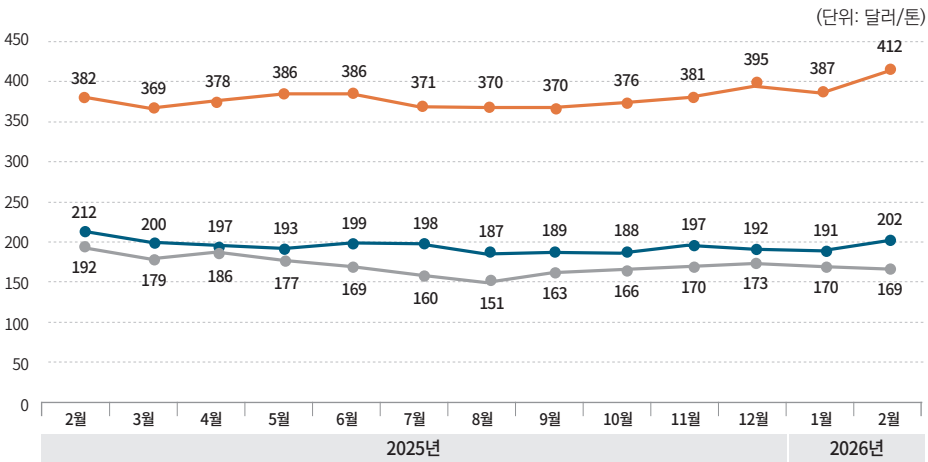
- 주요 곡물 중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회복을 주도함
- 단기 수급 불확실성과 수요 기대가 반영되며 상승 압력이 확대됨

❖ 옥수수 가격은 169달러/톤으로 전월(170달러/톤) 대비 0.3%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9% 하락함

- 생산 증가 전망과 글로벌 공급 여건 개선 영향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됨
- 주요 곡물 중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제한되며 가격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임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단위: 달러/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212	200	197	193	199	198	187	189	188	197	192	191	202	5.9	-4.9	
대두	382	369	378	386	386	371	370	370	376	381	395	387	412	6.6	7.9	
옥수수	192	179	186	177	169	160	151	163	166	170	173	170	169	-0.3	-11.9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26년 국내 곡물 수급, 품목별 상반 흐름 속 구조적 조정 국면 진입 전망³³⁾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은 '26년 국내 곡물 수급이 품목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쌀·콩·감자 등 주요 곡물은 재배면적 조정과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생산·공급 구조 재편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국제곡물 시장은 공급 여건 개선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쌀은 재배면적과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중장기적 생산 축소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 '26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67만 5천 ha로 전년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은 3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 전망됨
 - 농지전용, 농업인 고령화,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식용 소비 감소가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됨
 - 물가 상승률에 비해 쌀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콩은 단기적으로 생산 증가가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배면적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과제로 부상함

 - 생산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5만 6천 톤으로 집계됨
 - 논콩 재배면적 확대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다만 정부 매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누적 재고 부담이 확대되며 단경기 가격은 전년 및 수확기 대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됨
 - '26년 재배의향면적은 전작작물직불제 참여 감소와 수익성 저하 영향으로 소폭 감소 전망임
 - 수입콩 중심의 원료 시장 구조가 지속되며 국산 콩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구조적 과제로 지적됨
-  감자는 '25년 생산 감소 영향으로 '26년 상반기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25년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함
 - 저장량 감소 영향으로 '26년 상반기 평균 도매가격은 20kg당 6만 원 내외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지면적 감소와 재배 농가 고령화 영향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3) 한국농업신문(2026.01.29.), <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32>(2026.02.23. 검색)

 국내 곡물 수급은 품목별 구조적 조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격 변동성 관리보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수급 안정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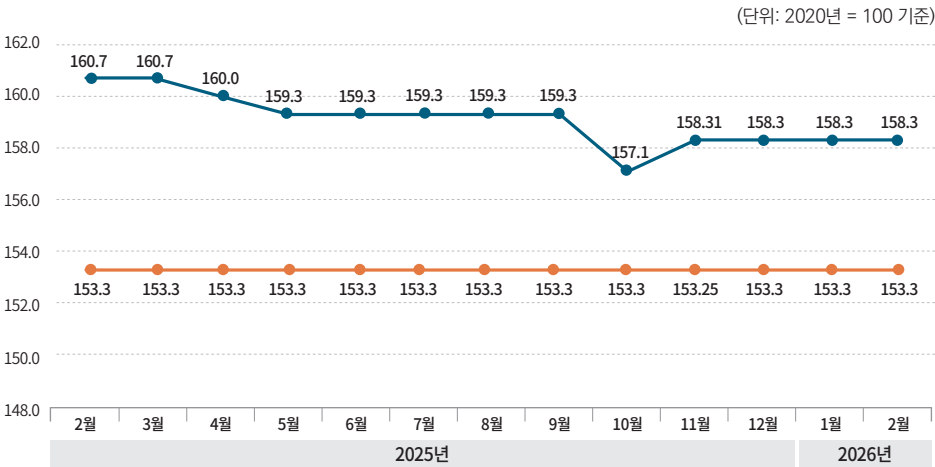


1 '26년 2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유지

- ▶ '26년 2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는 158.3p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도 153.3p로 보합세를 지속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25년 10월 일시 하락 이후 11월 반등을 거쳐 최근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하락하며 완만한 약세 흐름을 보임
-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장기간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함
 - 최근 1년간 153.3p 수준을 유지하며 변동성 없이 보합세를 유지함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0.7	160.7	160.0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1	158.3	158.3	158.3	0.0	-1.5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25	153.3	153.3	153.3	0.0	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6. 검색)

2 포스코, 수재슬래그 활용 다변화로 시멘트 의존도 완화 추진³⁴⁾

-  포스코가 철강 부산물인 수재슬래그 활용 범위를 시멘트 중심에서 농업·레저·생태복원·탄소저감 등으로 확대하며 활용 구조 다변화를 추진함
 - 건설 경기 둔화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슬래그 활용처 다각화를 통해 수요 기반을 확장함
 - 국내 시멘트 출하량은 약 5,600만 톤에서 3,6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며 원료 수요도 축소됨
 - 시멘트 원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적용 가능성을 확대함
-  농업 및 레저 분야에서 대체 소재로 활용되며 산업 적용 범위가 확대됨
 - 수재슬래그는 토양 개량 및 규산질 비료로 활용되며 산성 토양 개선 효과가 기대됨
 - 골프장 배토사 대체 소재로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며 연간 수요 대응이 가능함
 - 수입 모래 대체 수요 확대와 맞물려 레저 산업 활용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폐광산 복원 등 환경 분야에서 활용 성과가 확인되며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음
 - 폐광산 지역에 적용 시 식생 피복률 약 95% 수준을 기록하며 복원 효과를 확인함
 - 중금속 이동 억제 및 토양 산성 중화 효과가 나타나 환경 개선 기능이 입증됨
 - 생태복원 소재로서 공공 및 민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모습임
-  탄소저감 기술과 연계되며 수재슬래그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는 추세임
 - 풍화작용(EW) 기술 적용을 통해 1톤당 약 200kg 수준의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가 확인됨
 - 탄소저감 소재로 인증을 획득하며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됨
 -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소재로서 시멘트 대체 및 보완재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보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철강금속신문(2026.03.12.),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308\(2026.03.26. 검색\)](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308(2026.03.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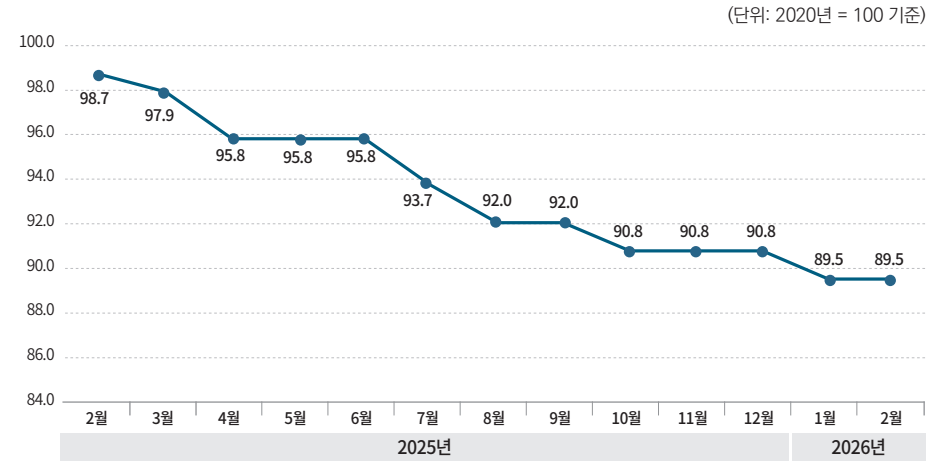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89.5p 기록

'26년 2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9.5p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9.3p 감소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8.7	97.9	95.8	95.8	95.8	93.7	92.0	92.0	90.8	90.8	90.8	89.5	89.5	0.0	-9.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6.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6.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인천 강화 해역 모래 퇴적으로 수심 저하 및 어업환경 악화 우려³⁵⁾

 인천 강화 해역에서 모래·갯벌 퇴적이 가속화되며 수심 저하와 항로 이용 제약 등 해상 운영 여건이 악화됨

- 한강·임진강 유입 토사와 큰 조수 간만의 차로 모래 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강화 해역 모래는 항만 모래 물동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으로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 일부 해역에서 수심이 낮아지며 어선 운항과 항로 이용에 어려움이 증가함

 해저 지형 및 수온 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며 어업 기반이 크게 위축됨

- 실뱀장어 어획량이 최근 3년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어업 피해가 심화됨
- 수온 및 서식 환경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어장 기능이 악화됨
- 어민 소득 감소와 함께 지역 어촌계 존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항로 안전과 생태계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준설 및 관리 필요성이 확대됨

- 어민들은 정기적인 수로 준설과 모래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함
- 무분별한 준설이 아닌 정밀 조사 기반의 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모래 퇴적 문제는 어업·항로·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기호일보(2026.03.15.),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241>(2026.03.26.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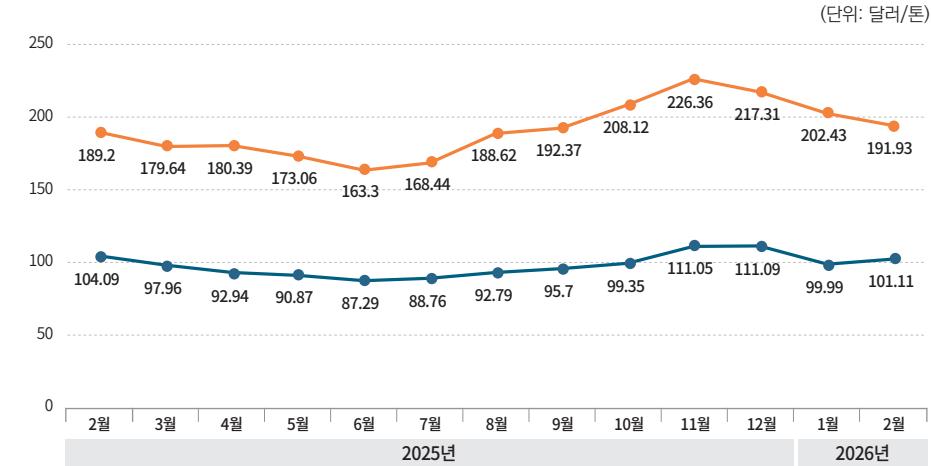


① '26년 2월 석탄 가격, 원료탄 소폭 반등·점결탄 3개월 연속 하락

- ’26년 2월 원료탄 가격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톤당 101.11달러, 점결탄 가격은 전월 대비 5.2% 감소한 톤당 191.93달러를 기록함
- 원료탄은 ’25년 12월 \$111.09/톤 정점 이후 1월 하락했으나 2월 소폭 반등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함
- 점결탄은 ’25년 11월 \$226.36/톤 최고점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함

석탄 가격 추이

원료탄(Thermal)
점결탄(Coking)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원료탄	104.09	97.96	92.94	90.87	87.29	88.76	92.79	95.7	99.35	111.05	111.09	99.99	101.11	1.1	-2.9
점결탄	189.2	179.64	180.39	173.06	163.3	168.44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202.43	191.93	-5.2	1.4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3.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아시아 주요국, 중동 분쟁에 따른 LNG 공급 차질로 석탄 발전 확대³⁶⁾

📍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 LNG 수출 중단으로 아시아 현물 LNG 가격이 급등하며, 각국이 석탄 화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중단되고,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선적이 중단되면서 아시아 현물 LNG 가격이 3년 내 최고치로 2배 상승함
- 대부분의 LNG 계약이 유가에 3개월 시차로 연동되어 있어 6월부터 아시아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컨설팅사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는 '26년 아시아 LNG 수입 전망치를 기존 1,240만 톤에서 약 500만 톤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
- LNG 가격 급등에 따른 석탄 화력 전환 수요 확대로 아시아 일간 석탄 기준 가격은 3월 중 13.2% 상승했으며, 유럽 석탄 선물도 14.2% 상승함
- 에너지 분석사 크플러(Kpler)는 낮은 가스 재고 영향으로 '26년 EU 석탄 수입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이 석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현물 석탄 수입은 제한적인 흐름임

- 한국은 석탄 화력 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며, 일본 최대 전력사 제라(JERA)는 석탄 화력 발전을 높은 가동률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 다만 중국·인도·일본·한국 등 주요 구매국은 충분한 석탄 재고와 장기 계약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현물 수입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임
-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고 LNG 발전을 축소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석탄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고, 태국은 LNG 보존을 위해 최대 규모 석탄 발전소의 발전량을 확대하고 있음
- 남아시아에서도 방글라데시가 3월 석탄 발전량과 석탄 화력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태양광 확충을 통해 LNG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 데 이어 국내 자원 기반 발전을 추가 확대할 방침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6) Reuters(2026.03.17.),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asia-pivots-coal-middle-east-conflict-chokes-lng-supply-2026-03-17/> (2026.03.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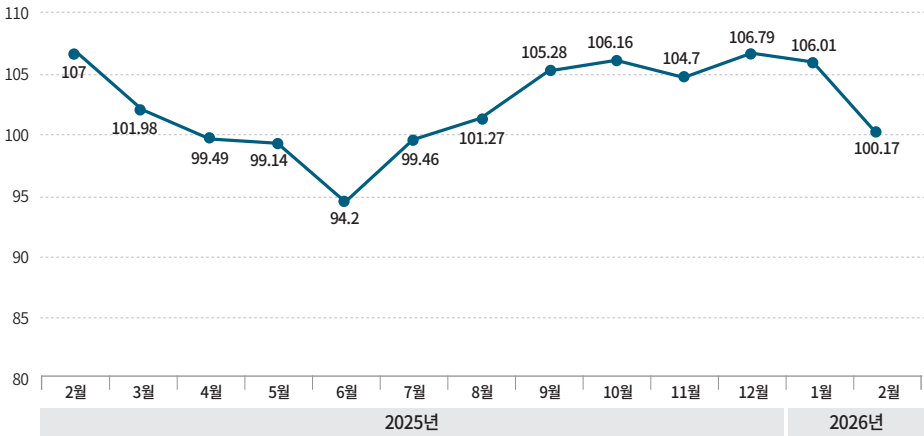
6) 철광석



1 '26년 2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하락세 지속

- '26년 2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전월 대비 5.5% 하락한 톤당 100.17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6.4% 감소함
- '25년 6월 톤당 94.2달러의 저점 이후 반등하며 '25년 12월 106.79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6년 들어 두 달 연속 하락하며 100달러 선으로 회귀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7	101.98	99.49	99.14	94.2	99.46	101.27	105.28	106.16	104.7	106.79	106.01	100.17	-5.5	-6.4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1.27\)](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1.27))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중국, 철광석 수입 증가에도 조강 생산 부진으로 항만 재고 사상 최고치 경신³⁷⁾

❖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강 생산은 감소하면서 수입 물량이 항만 재고로 누적되고 있음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6년 1~2월 철광석 수입량은 2억 1,00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25년 12월에는 월간 사상 최고치인 1억 1,965만 톤을 기록함. '25년 연간 수입량도 12억 6,000만 톤으로 역대 최대 수준임
- 반면 같은 기간 조강 생산량은 1억 6,034만 톤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으며, '25년 연간 조강 생산량도 9억 6,081만 톤으로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 컨설팅업체 스틸홈(SteelHome) 기준 3월 13일 중국 주요 항만 철광석 재고는 1억 6,691만 톤으로, '25년 8월 초 저점(1억 3,010만 톤) 대비 28% 증가하며 '12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수입 증가는 가격 하락기 선제적 원료 확보와 공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중동 리스크에 따른 잠재적 공급 차질 가능성도 제기됨

- 수입 증가의 배경으로는 '26년 초 철광석 가격 하락기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원료를 확보한 점과 호주·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계절적 기상 차질 없이 공급이 이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까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국 철광석 수급에 미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증가 등 간접적 영향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2월 말 이후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0달러를 상회하며 반등함
- 향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될 경우 주요 수출국의 철광석 생산·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호주는 전체 디젤 수요의 약 40%를 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어, 정제유 공급이 제한되면 식량 생산·긴급 서비스에 연료가 우선 배분되면서 광산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7) SteelDaily(2026.03.24.), [https://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99077\(2026.03.24. 검색\)](https://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99077(2026.03.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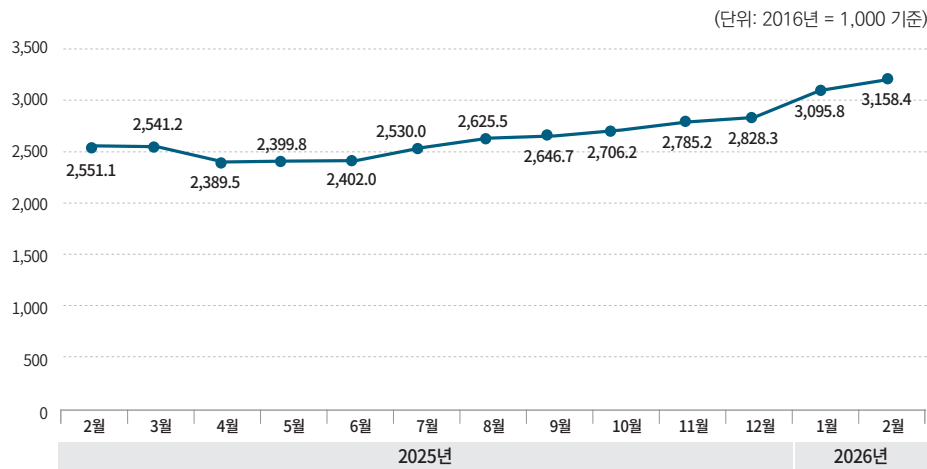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6년 2월 광물종합지수, 전월 대비 2.0% 상승하며 상승 기조 유지

'26년 2월 광물종합지수는 3,158.4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8% 상승함. '25년 4월 2,389.5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551.1	2,541.2	2,389.5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828.3	3,095.8	3,158.4	2.0	23.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3.24. 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3.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텅스텐 가격 급등 속 강원 상동광산 32년 만에 재가동, 비중국권 공급망 구축 본격화

 중국 수출규제와 중동 분쟁 군사 수요 확대로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음³⁸⁾

- 텅스텐은 초고밀도·초고경도 금속으로 미사일 부품, 장갑 관통탄, 항공기 균형추 등 방위산업과 시추 장비, 반도체 배선 공정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됨
- 패스트마켓(Fastmarkets)의 APT 유럽 벤치마크 기준 텅스텐 가격은 톤당 2,250달러로, '25년 2월 중국 수출규제 이후 557% 급등함. 중동 분쟁 격화로 '26년 군사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컨설팅사 프로젝트 블루(Project Blue)에 따르면 '25년 중국의 제한 대상 텅스텐 수출량은 약 40% 감소했으며, 곧 가동될 대규모 공급망이 부재해 공급 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공급 부족 속에서 강원 영월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재가동되며 비중국권 텅스텐 공급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³⁹⁾

- '94년 폐광 이후 재가동되는 상동광산은 연간 64만 톤의 원석을 처리해 2,300톤의 텅스텐 정광을 생산할 계획이며, 경제적 가치는 정광 기준 약 27조 원, 산화 텅스텐 기준 최대 46조 원 규모로 추산됨
- 영월군 기회발전특구 내에는 연간 4,000톤 규모의 고순도 산화 텅스텐 제련공장도 추진되며, 채굴-정광-제련으로 이어지는 국내 텅스텐 가치사슬 구축이 목표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를 발판으로 핵심 광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 자급 체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8) 매일경제(2026.03.16.), <https://www.mk.co.kr/news/world/11989406>(2026.03.24. 검색)

39) 연합뉴스(2026.03.17.),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141600062>(2026.03.24. 검색)

8) 목재



미국 상무부, 캐나다 침엽수 목재 및 중국 목재 제품 반덤핑 관세 행정 재검토 착수⁴⁰⁾

1

- 📌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9일 캐나다 침엽수 목재,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 중국산 목재 가구 등 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재검토를 공식 개시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27년 1월 31일 발표 예정임
 - 캐나다 침엽수 목재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합산 세율이 5차 재검토의 14.40%에서 6차 재검토를 거쳐 35.19%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번 재검토는 '25년 한 해 동안의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함
 - 미국 목재연합(U.S. Lumber Coalition)은 캐나다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무역 관행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 한편, 중국산 목재 가구의 경우 '25년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억 2,940만 점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액은 20% 급감한 약 56억 달러에 그침
 - 평균 단가도 14% 하락하여 개당 약 43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지속적인 관세 정책과 수요 약세가 중국 목재가구 수출 실적에 복합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목재가구 수출의 약 27%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재검토 결과가 중·미 간 목재제품 교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0) Wood & Panel USA(2026.03.09.), <https://www.woodandpanel.us/news/article/u-s-commerce-opens-duty-review-on-canadian-lumber-and-chinese-wood-products-as-tariffs-reach-35/>(2026.03.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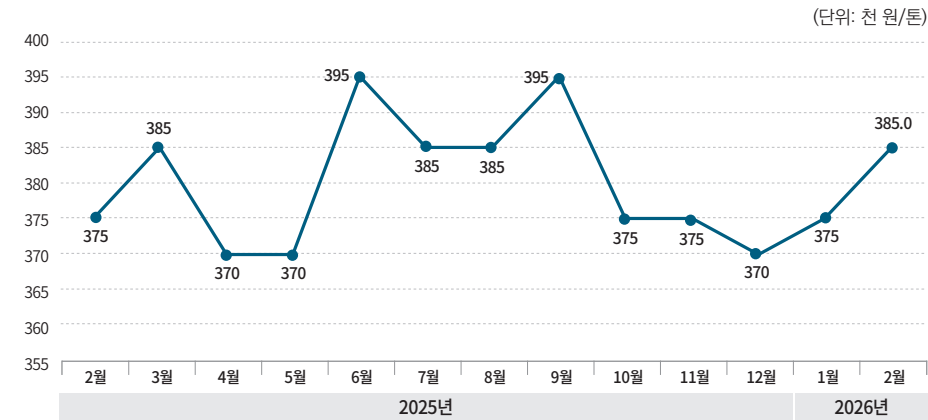
9) 고철



1 국내 고철(생철) 가격, '26년 들어 2개월 연속 상승세⁴¹⁾

-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25년 12월 370천 원/톤까지 하락한 이후 '26년 1월 375천 원/톤, 2월 385천 원/톤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6년 2월 기준 385천 원/톤으로 전월 대비 10천 원/톤(+2.7%)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375천 원/톤) 대비로도 10천 원/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5년 하반기에는 9월 395천 원/톤의 고점 이후 10~12월 375→375→370천 원/톤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바 있으나, 연초 이후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2.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3.25.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3.25.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1)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2.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2.25.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2.25.검색))

2 슬로바키아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과정서 고급 스크랩 공급 부족 직면⁴²⁾

-  슬로바키아의 최대 철강기업 US스틸 코시체(US Steel Košice)가 고로 2기를 폐쇄하고 연산 31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전환에 10억 유로(약 1조 7천억 원)를 투자하는 탈탄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슬로바키아는 EU 환경정책에 따라 수소환원+DRI 방식 대신 스크랩-전기로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4년 기준 스크랩 사용 비중이 26%에 불과해 원료 조달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자체 조달 가능한 스크랩은 자가 발생량(약 40만 톤)을 제외하면 124만 톤 수준이며, 그 중 노폐 스크랩이 60%를 차지해 자동차 강판 생산에 필요한 고품위 스크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일본 스크랩산업 전문조사기관 SRR⁴³⁾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100% 전기로 전환 시 '30년 필요 스크랩은 360만 톤('24년 대비 295만 톤 증가)으로 추산, 외부 조달 필요량은 3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분 국내 전환 및 시중 구매 가능분을 모두 합산해도 약 190만 톤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생산 규모를 연산 200만 톤으로 낮추더라도 50~90만 톤의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임
 - EU 전체 스크랩의 60~70%는 노폐 스크랩이고, 고품위 가공 스크랩은 30~40%에 불과한 가운데, EU 역내 국가들도 전기로 전환을 진행 중이어서 역내 스크랩 공급 여력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임
-  SRR 보고서는 슬로바키아 전기로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고품질 스크랩의 공급 병목 현상을 지목하며, 노폐 스크랩의 선별 프로세스 강화, 스크랩 가공회사 공동 투자, 유럽 대형 스크랩 기업과의 제휴 등 공급망 투자 방안을 제시함

 - 특히 US스틸 코시체를 인수한 일본제철의 역할이 스크랩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페로타임즈(2026.03.18.),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86>(2026.03.25. 검색)

43) SRR(Steel Recycling Research): 철스크랩 수급 및 재활용 시장을 조사·분석하는 일본의 연구기관

10) 철재



1 '26년 2월 국내 철강 생산자물가지수, 세 품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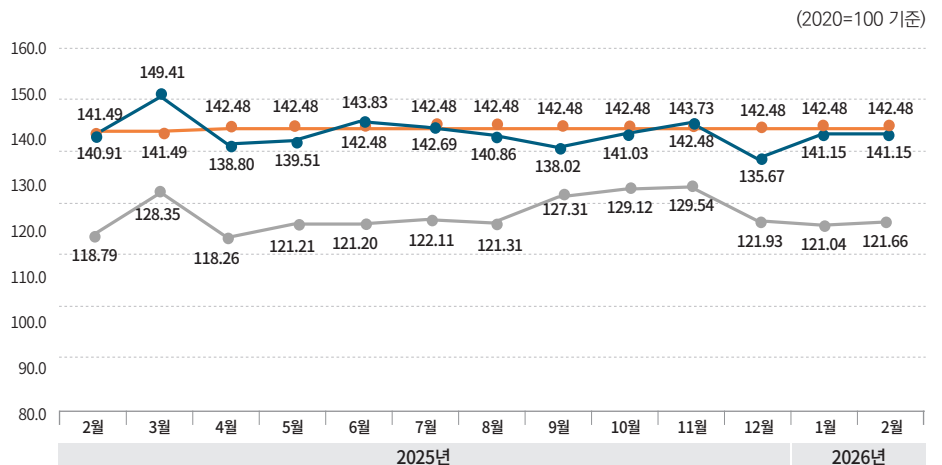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6년 2월 국내 주요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물가지수는 세 품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26년 1월까지 이어졌던 전반적인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남

 - 선철은 '26년 2월에도 142.48을 유지하며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 동월(141.49) 대비 0.7% 소폭 상승하며 12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슬래브는 '25년 12월 연중 최저치(135.67) 이후 '26년 1·2월 연속 141.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140.91) 대비 0.2% 상승해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됨
 - 빌렛은 '26년 2월 121.66으로 전월(121.04) 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18.79) 대비로는 2.4% 올라 세 품목 중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을 기록함
- 세 품목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점은 '26년 1월까지 지속되었던 약세 국면에서의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음

 - 특히 슬래브와 빌렛은 '25년 12월 저점 이후 2개월 연속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반제품 시장의 조정 압력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임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03 품목 및 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40.91	149.41	138.80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141.15	141.15	0.0	0.2	
빌렛	118.79	128.35	118.26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121.04	121.66	0.5	2.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5.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5.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글로벌 철강시장,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 및 가격 상승 압력 확대⁴⁴⁾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철강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이란은 이란력 기준 연초 10개월간 완제품·반제품 철강 1,032만 톤을 수출해 온 주요 철강 수출국으로, 항구 폐쇄와 전력 공급 차질로 인해 이 물량이 사실상 시장에서 이탈함
 - 동남아·ASEAN 지역 수요자들은 이란산 철강 수입을 대기 중인 상황이며, 선적·하역률 저하와 선박 운항 차질로 역내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운임·보험료 급등이 글로벌 철강 공급망 비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홍해 관련 해상운임이 크게 상승한 데다 전쟁 위험 조항(war clause) 적용으로 보험료까지 인상되면서 운송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힘
 - 터키 철강생산자협회(TCUD) 측은 중동 에너지 공급 차질이 미국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전략에도 부담을 주는 한편, 세계 각국 제강사 모두가 에너지 비용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함
-  제퍼리스 파이낸셜 그룹(Jefferies Financial Group Inc.)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전 세계 철광석 생산의 약 3%, 해상 철광석 공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철광석 시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 또한,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원가 곡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간접 영향을 통해 여타 원자재 시장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경고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4) EUROMETAL(2026.03.04.), <https://eurometal.net/global-steel-sector-weighs-impact-of-iran-conflict/>(2026.03.25. 검색)

11) 자동차



① '26년 1월 자동차산업, 전년 동월 대비 내수·수출·생산⁴⁵⁾

- 1월 내수는 전월 대비 16.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한 120,787대를 기록함
 - '26년 설 연휴가 2월로 이동하면서 영업일수 증가 효과와 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정 효과로 판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함
 - 친환경차는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57,584대가 판매되어 전체 내수 판매의 47.7%를 차지함
 - 하이브리드는 국산과 수입 모두 높은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차는 가격 인하 효과로 판매가 급격히 증가함
- 1월 수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한 246,574대를 기록함
 - 미국향 HEV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향 전기차 물량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수출을 견인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5% 증가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7.4%인 92,164대를 기록함
- 1월 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한 360,500대를 기록함
 -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및 일부 업체의 전년도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줌

단위 : 대, 백만 \$, %

'26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률		
	연간	1월	1월 누적	12월	1월	1월 누적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월 누적 대비
내수	1,680,110	105,928	105,928	144,882	120,787	120,787	-16.6	14.0	14.0
(국산차)	1,355,296	89,446	89,446	114,895	98,058	98,058	-14.7	9.6	9.6
(수입차)	324,814	16,482	16,482	29,987	22,729	22,729	-24.2	37.9	37.9
OEM 수입	17,925	1,401	1,401	1,413	1,840	1,840	30.2	31.3	31.3
수출	2,736,109	1,99,854	199,854	244,772	246,574	246,574	0.7	23.4	23.4
(완성차 수출액)	71,976	4,987	4,987	5,952	6,070	6,070	2.0	21.7	21.7
(부품 수출액)	21,200	1,569	1,569	1,831	1,631	1,631	-10.9	3.9	3.9
생산	4,102,200	290,588	290,588	362,564	360,500	360,500	-0.6	24.1	24.1

주: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승용차등록통계+국내제조사의 해외공장산 수입판매(OEM수입)+Tesla 합산, 수출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MTI 741, MTI 742)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2.1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7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3.21.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2.1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7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3.21. 검색)

2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강화 필요성 제기⁴⁶⁾

-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량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 성장을 위해 산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됨
 - '24년 국내 완성차 생산량은 410만 대(승용 384만 대·상용 26만 대)이며 이 중 66.7%가 수출되는 구조임
 - '23년 이후 연간 400만 대 이상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내 비중은 종사자 11.3%, 출하액 14.1%, 부가가치 11.9%임
 - 국내 친환경차 생산은 '20년 44만 4천대에서 '24년 120만 3천대로 약 170% 증가함
 - 자동차 산업 유형자산 증가율은 '20년 1.3%에서 '24년 6.4%로 상승했으나,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 조짐이 나타남
-  해외 생산 확대 및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완성차 해외 생산 비중은 급증하지 않았으나, 배터리 등 중간재 해외 의존도 확대에 따라 고용·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하락 추세임
 - 일본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 설립과 핵심 부품 내재화를 추진 중임
 - 보고서는 미래차 마더팩토리 구축,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이종 산업 협업 확대와 중소 부품사 AI 활용 역량 강화, 친환경차 인센티브 체계 재설계 등이 병행 과제로 언급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헤럴드경제(2026.03.1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1320?ref=naver\(2026.03.21. 검색\)](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1320?ref=naver(2026.03.21. 검색))

3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기준 글로벌 완성차 2위 기록⁴⁷⁾

- 현대자동차그룹이 '25년 영업이익 20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업체 2위에 오름
 - 글로벌 판매량은 727만 대로 1,132만 대를 기록한 토요타그룹, 898만 대를 기록한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매출액은 300조 4,000억 원으로 3위를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은 폭스바겐그룹 89억 유로(약 15조 원)를 상회함
 - 토요타그룹은 4조 3,000억 엔(약 40조 원)으로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고, GM은 127억 달러(약 19조 원)를 기록함
 -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 비용 7조 원 이상을 부담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폭스바겐그룹은 54% 급감함
-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방어했으며, 향후 친환경차·SDV 중심 대응을 추진함
 -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등 3개 생산거점을 운영하며 현지 생산을 확대함
 - '25년 HMGMA에서 6만 대 이상을 현지 판매했으며, '30년까지 미국 생산 비중을 40%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임
 - 현대차그룹은 HEV·EREV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와 SDV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AI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28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중앙일보(2026.03.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900\(2026.03.21. 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900(2026.03.21. 검색))

12) 잡화



① 미국 제조업 PMI 52.4 기록, 확장 국면 유지⁴⁸⁾

■ '26년 2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52.4로 전월(52.6)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기준선(50)을 상회하며 확장 국면을 유지함

- 전월 급등 이후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임
- 전년 동월 대비 4.2p 상승하며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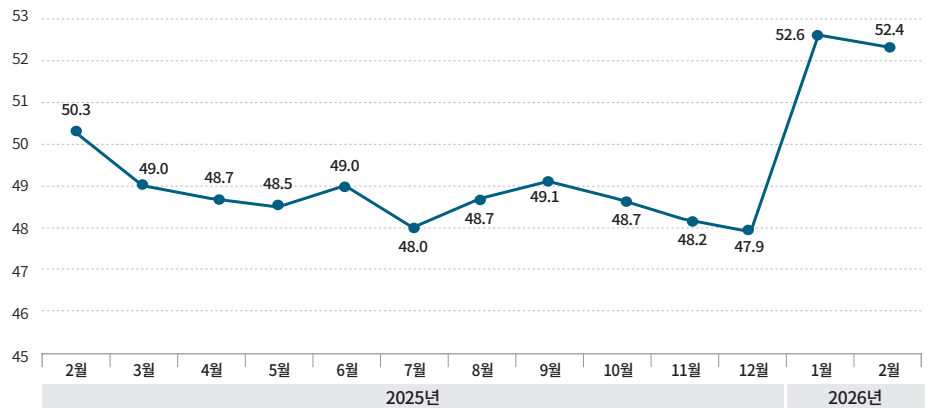
■ 확장세 유지 속 단기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이 나타남

- 전월 대비 0.4p 하락하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임
- '25년 하반기 위축 구간(50 이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확장 흐름을 유지함
- 연초 반등 이후 경기 회복세의 지속 여부에 대한 관망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제조업 경기 회복은 유지되고 있으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병존하는 상황임

- PMI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생산 및 수요 회복 기대가 지속됨
- 다만 단기 조정 흐름이 나타나며 추가 상승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향후 신규주문 및 생산지표의 지속적 개선 여부가 확장세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2.05.), KMI 작성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8) Trading Economics(2026.03.02.),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3.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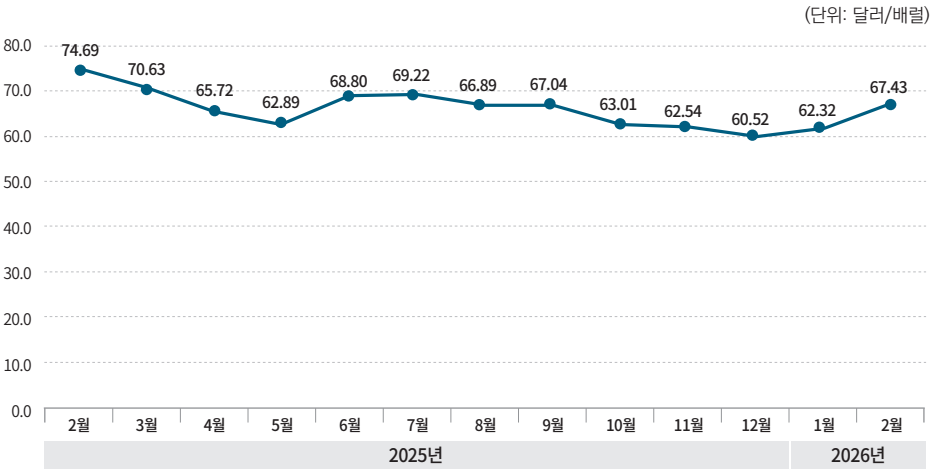
13) 유류



1 '26년 2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8.2% 상승

- 2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8.2% 상승한 67.43달러를 기록함
 - '25년 12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3대 유종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감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10.4% 증가한 68.40달러로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기록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7.92	72.49	67.74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62.05	61.97	68.40	10.4	-12.2
Brent	74.95	71.47	66.46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61.63	64.73	69.37	7.2	-7.4
WTI	71.21	67.94	62.96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57.87	60.26	64.52	7.1	-9.4
평균	74.69	70.63	65.72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60.52	62.32	67.43	8.2	-9.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3.25. 검색)

2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충격 확대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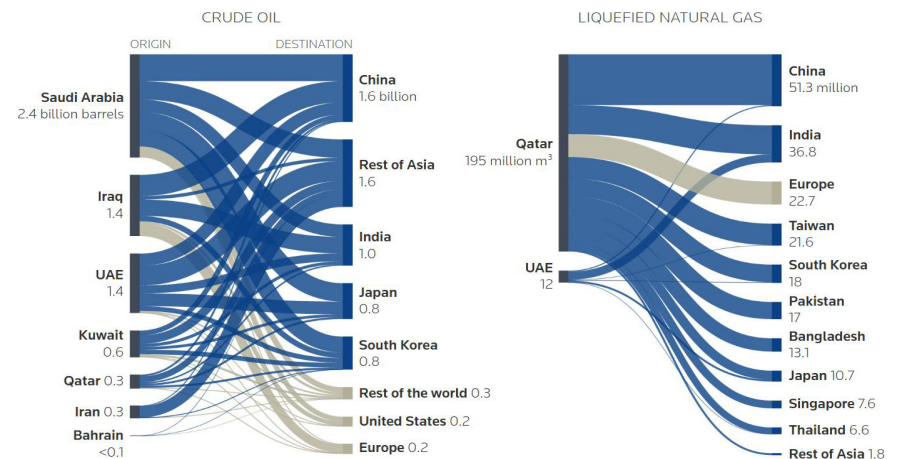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원유·가스 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확대되는 양상임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일일 원유 및 LNG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봉쇄로 인해 중동 주요 산유국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쿠웨이트 등은 유조선 선적이 불가능해지면서 저장시설 포화로 생산을 감축하는 조치에 나섬
- 중동 공급 차질을 보완할 수 있는 여유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정유소들은 재고를 활용해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임

●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아시아는 중동산 원유·가스·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됨
- 중국은 정유사에 연료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은 약 30년 만에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며, 방글라데시는 전력 절감을 위해 대학을 폐쇄하는 등 각국 대응이 확대됨
- 에너지 비용 상승은 식료품 가격 및 농업 투입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호르무즈 해협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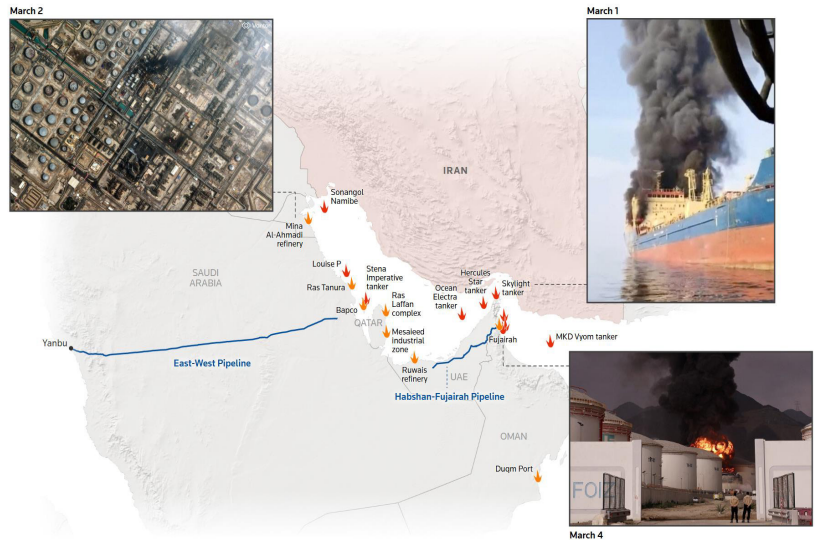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graphics/IRAN-CRISIS/OIL-LNG/mopaokxlypa/> (2026.03.25. 검색)

49) Reuters(2026.03.11.), <https://www.reuters.com/graphics/IRAN-CRISIS/OIL-LNG/mopaokxlypa/> (2026.03.25. 검색)

대체 수송 경로와 에너지 인프라 제약으로 해운·항만 물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국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일부 우회 수송이 가능하나 수송 능력 한계로 해협 물동량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정유소 및 항만 시설 피해와 선박 공격 위험 증가로 해상 운임 및 보험료 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다수 선박이 해협 인근에서 대기 중인 상황임

호르무즈 해협 일대 중동
에너지 인프라 피해 현황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graphics/IRAN-CRISIS/OIL-LNG/mopaokxlypa/> (2026.03.25. 검색)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중동 에너지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및 한국 경제 '제2 오일쇼크' 우려 확대⁵⁰⁾

-  중동 지역 군사 충돌 격화와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국제 유가 급등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이란은 카타르 라스라판 LNG 산업단지와 사우디 안부 정유시설을 공격하며 주요 생산·정제 거점 가동 중단을 초래함
 - 에너지 시설 직접 타격으로 공급 차질이 시장 흡수 한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며 유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임
 - 전쟁 장기화 시 유가 150달러 이상 상승 가능성과 함께 극단적으로 2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비대칭적 경제 충격이 확대되며 한국은 직격탄을 받는 구조임
 - 미국은 에너지 자급 체계를 기반으로 충격을 완충할 수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집중됨
 - 한국은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충격' 상황에 직면하며 경제 불안이 확대됨
-  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산업·물가·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복합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 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의존 산업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임
 - 정부의 비축유 방출 및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거시경제 리스크가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50) 글로벌이코노믹(2026.03.20.),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3/202603200859533547fbec65dfb_1(2026.03.25.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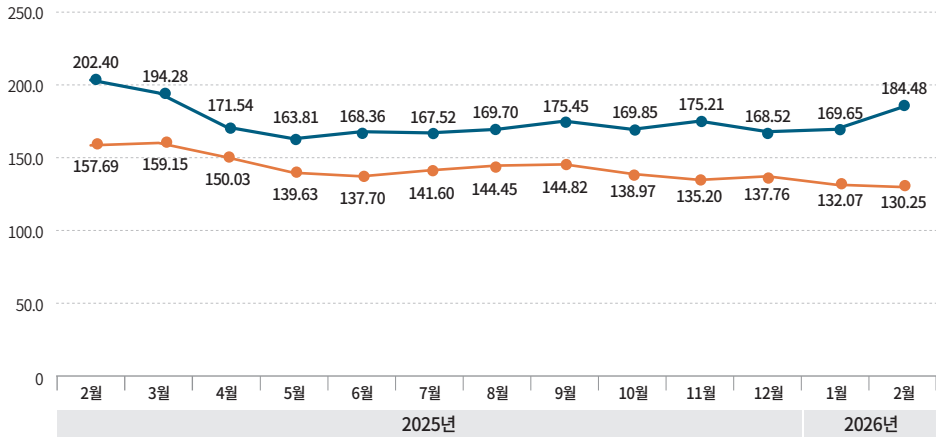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증가, 에틸렌 감소

- 2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8.7% 증가한 184.48p, 1.4% 하락한 132.07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전월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동 사태 영향으로 향후 증가세가 전망됨

(단위: 2020 = 100 기준)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2.40	194.28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169.65	184.48	8.7	-8.9
에틸렌	157.69	159.15	150.03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20	137.76	132.07	130.25	-1.4	-17.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5\)](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3.25)) 검색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석유화학 구조개편 및 고부가 전환 본격화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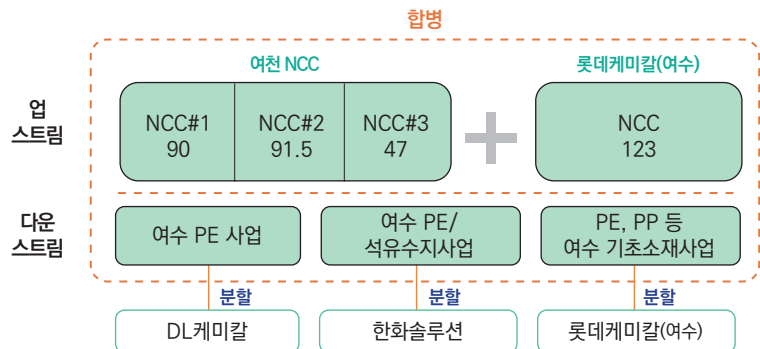
-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며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한 산업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업스트림 부문 재편이 추진됨
 -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디엘케미칼의 PE, 한화솔루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 주력 사업을 신설법인에 통합하고 일부 범용 설비를 조정할 계획임
- 사업재편은 범용 중심 생산체제를 축소하고 의료용 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이번 재편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혁신 등 기업활력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할 예정임
 - 사업재편이 승인될 경우 세제지원과 상법 특례에 더해 금융·R&D·원가절감·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임
- 산업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 수급 리스크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임**

 - 산업부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기업과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급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사업재편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면밀히 지원할 계획임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안)



자료: 산업통상부,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22/view#\(2026.03.25. 검색\)](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22/view#(2026.03.25. 검색))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51)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3.20.),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22/view#\(2026.03.25. 검색\)](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22/view#(2026.03.25. 검색))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납사 공급난 심화⁵²⁾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급등으로 납사 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한국·일본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납사는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핵심 기초유분으로, 중동산 원유 운송 차질로 공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
- 납사 가격은 약 50% 급등해 톤당 875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며, 해상 운송 차단으로 추가 수급 불안이 확대됨
- 특히, 한국과 일본은 높은 중동 의존도로 인해 원료 수급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구조로 한국은 납사 사용량의 약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하며, 이 중 한국은 약 60%, 일본은 약 70%를 페르시아만에서 조달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수급 대응을 위해 납사 수출 제한과 비축유 방출 시 납사 공급 병행 등의 조치를 검토 중임

 납사 부족으로 석유화학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며 주요 기업들이 감산 및 비상 대응에 돌입하고 있음

- 여천NCC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최소 가동 수준으로 생산을 축소했으며,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계약 이행 차질 가능성을 통보함
- 일본에서도 미쓰비시케미칼, 미쓰이화학 등이 감산에 나섰고 일부 기업은 설비 가동 중단 가능성을 경고함

 구조적 경쟁 열위와 외부 리스크가 결합되며 산업 전반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은 중국 대비 설비 경쟁력, 원가 구조, 내수 기반 등에서 열위에 있었으며 이번 사태로 부담이 가중됨
- 제한된 재고 수준과 공급망 제약으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에틸렌 등 기초유분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이나영 부연구위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52) 연합뉴스(2026.03.15.),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5033100009>(2026.03.25.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